

홀트소식

WINTER 2025 — VOL.215



홀트소식

www.holt.or.kr



겨울이야기

대한민국 '쌈바 풋살'의 권위자인 김태우 풋살 감독님의 특별훈련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런 FS' 단원들. (관련 기사 8~9쪽)



20



23



36



38



40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 김정오(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본부 02-331-7000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031-790-2900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051-760-3600
이사 정용근(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희(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장 역임) 박경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린다백(홀트아동복지회 이사) 스티브 모리슨(한국입양홍보회 이사) 유희정(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 최재성(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부 부산지부 051-468-4576 대구지부 053-756-0183 충청지부 042-586-1983 인천지부 032-424-0145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053-563-1007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032-424-1391
감사 정재훈(열린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오윤숙(정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산하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 031-914-6632 홀트일산요양원 031-914-6633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고양보호작업장 031-929-149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929-1400 홀트강동복지관 02-2251-6100 고양시재활스포츠허브 031-929-1500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031-914-6635 홀트학교 031-915-2913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053-746-750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051-543-2431	홀트미추홀 032-548-1601 홀트어린이집 031-217-0437 하남시립은방울어린이집 031-790-297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 042-585-3004 고운뜰 031-216-9004 아름뜰 02-334-4614 대구클로버 053-654-0181 대전클로버 042-583-4006 광주클로버 062-361-5900	
		국제개발협력 홀트 해외사업장 (몽골, 캄보디아, 네팔, 탄자니아) 02-331-7040	

Contents

신년호 특집
04 축적된 70년 사회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아동·청소년복지
08 ① 런던 FS, 필드에서 함께 그려갈 미래를 기대하며
10 ②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의 첫걸음, 'Owned' 프로젝트!
12 ③ 남중이의 세 번째 단어, '마비'

한부모가족복지
14 ① 위기에 놓인 미혼모자,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님니다!
16 ② 자립 현장으로 나간 엄마들의 홀로서기 그리고 함께 서기
18 ③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선물해준 '아침뜰 플라워 클래스'

장애인복지
20 ①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착한송년회 'Show me the heart'
23 ② 불가능을 가능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한계를 넘어서다

지역사회복지
26 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사이사이'
28 ② 아빠와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 '부자(父子)의 탄생'

국제개발협력
30 몽골 아동과 가족의 더욱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도약

캠페인
32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버린 아이, 새봄이

나눔스토리
34 ①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새로운 도전 그 감동의 여정
36 ② 나눔과 봉사로 하루하루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38 ③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HD현대1%나눔재단 'GRC 플라마켓'
40 ④ 더 큰 사랑, 더 큰 가족 홀트 전국후원회의 헌신에 감사하며
42 ⑤ 'Lemon12' 김의근 대표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 스토리
44 ⑥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Love in Action'

46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통권 215호(계간) 발행일 2025년 1월 24일 발행인 김정오 편집인 신미숙
발행처 나눔마케팅본부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홈페이지 www.holt.or.kr
후원문의 02-331-7073~6
후원계좌 KB국민은행 479037-01-000461 홀트아동복지회
좋은 사연 좋은 제언 pr@holt.or.kr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후원자님, 지구와 자연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종이 소식지' 대신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수산'으로 환경을 보호해 주세요.
자원을 아끼는 마음들이 모인다면,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식지 수산 전환 방법 : 후원자 상담센터(02-331-7073~7076)로 연락 주세요.

축적된 70년 사회복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복지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김정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장의
70주년 소회와 미래 전망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홀트소식> 신년호를 맞아 김정오 이사장님을 모시고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의 소회와
사회복지의 발전 방향,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 홍보팀장 오진희



올사년 새해를 맞아 홀트 가족에게
신년 인사 부탁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홀트아동복지회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후원을 지속해 주신 후원자님들 덕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련의 사업들은
자원봉사자님의 열정과 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자님과 자원봉사자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은 홀트아동복지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진실한 기독교인이자 실천가였던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아동 사랑으로 출발한 홀트아동복지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개무량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전쟁 후의 가난과 결핍으로
부모 잃은 아이들과 장애아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입양복지를 시작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특수교육,
미혼모 상담 등을 실천해왔습니다.
당시 한국의 사회복지의 응급 재난구호와 외국
민간단체의 원조 활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홀트아동복지회가 근대적 사회복지의 실천해온
기관이라는 점에서 홀트아동복지회의 일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66
진실한 기독교인이자 실천가였던
설립자 해리 홀트 씨의 아동 사랑으로
출발한 홀트아동복지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무척이나 감개무량합니다.
99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와
관련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자율운영위원장
활동을 마칠 무렵,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사외이사직을
제안받아 2014년부터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연 4회 이상 실시되는 이사회에 참여하면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이사님들의 애정과 진정성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이사장을 맡아 지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거주시설, 체육시설
등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 유형과 목적에 따라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보호시설,
체육시설 등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은 재활스포츠센터에서 땀이 온몸을 흠뻑 적실
정도로 운동에 집중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들이
지속되어야 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고 그 후유증을 갖고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저 또한 느껴왔습니다. 저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였음을 상기하고 지난날을 돌아보면, 제가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복지 지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대 시절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며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인상 깊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교 안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큰 수영장이 있었는데,
일주일에 2회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용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한번은
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학생이 수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영 안전원 네댓 명이 와서 이동과 걷기 연습을 돕는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복지사업 역시 장애인을 포함해 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모습을 보면서 장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우리와 크게 다름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의 개념 또한 바뀌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장애는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 장애가 시작되는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장애를 지닌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홀트아동복지회가 설립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시기로 당시 한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되었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나 지원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복지가 사회복지의 핵심이고 원칙이어야 함을 널리 확산시키며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아동과 장애인, 미혼모 지원에 초석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지 분야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복지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양적인 성장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전후로 장애인들의 탈 시설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에서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숫자를 일률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장애인들 중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룹홈에서 생활하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복지의 수요와 공급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에 간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키워서 직업을 갖고 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체제가 만들어지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70주년을 넘어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목표는 무엇일까요?

홀트아동복지회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삶'이라는 가치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복지사업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립 지원이 절실한 시설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함양하여 자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들 또한 재활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堂堂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한 위기가정 아동에게는 보호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큰 가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런런 FS, 필드에서 함께 그려갈 미래를 기대하며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런 FS의 힘찬 출발

홀트아동복지회는 KB손해보험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취·창업지원사업 런런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연계 지원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풋살구단 '런런 FS(Run-Learn Futsal)'를 창단했습니다. 런런 FS 단원들은 창단과 함께 곧바로 합숙훈련, 친선경기에 참여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런런 FS의 뜨겁고도 짜릿했던 활약상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글 아동복지팀 이채영

런런 FS 창단식, 힘찬 출발을 기념하며

런런 FS는 2024년 7월 상암 DMC 실내 풋살장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런런 FS 창단식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을 비롯해 후원사인 KB손해보험 관계자들이 참석해 런런 FS 구단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런런 FS의 특별함은 자립준비청년으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풋살구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단 운영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감독의 직업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단식에서는 신민규 총괄 감독의 임명식과 열다섯 명 단원들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민규 총괄 감독은 '런런 챌린지' 3기에 참여하여 종합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과 대한축구협회(KFA) C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 새롭게 창단된 런런 FS에서 단원들의 기량 함양을 위해 풋살클래스를 지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2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 특별경기 참가

창단식 후 격주로 만나며 발을 맞춘 런런 FS는 9월 2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체육대회'의 자립준비청년 특별팀으로 선발, 초청되어 기량을 펼쳤습니다. 어릴 적 양육시설에서 체육인을 꿈꾸며 자라왔던 청년들이 어느덧 어엿한 대표팀으로 성장해 더욱 뜻깊었습니다. 런런 FS 현수막의 로고처럼 필드에서 날개 돋친 듯 활약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끈끈하게 하나 되는 시간, 합숙훈련

단원들은 팀워크를 다지며 기술을 연마하는 특별훈련을 받

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런런 FS 단원들은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을 코칭하는 전문 풋살 감독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쌘바 풋살'의 권위자인 김태우 감독님을 모시고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세계강진태권도연맹(WKT) 경상남도 지부장인 진주의 멘토드림태권도 배재현 관장님을 모시고 실전 태권도 특강을 실시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키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합숙 훈련 마지막 날, 다 같이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서울 FC vs 수원 FC' 경기를 직관하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단원들은 프로 선수들의 경기를 직접 보며 다시 한번 풋살 선수로서의 기량과 경쟁력을 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KB손해보험과의 친선경기, 그리고 플랩풋볼 대회 출전

런런 FS 단원들은 후원사인 KB손해보험 사내 풋살 동호회 'KB손해보험 유나이티드팀'과 친선경기도 치렀습니다. 박빙의 승부 속에 경기장은 단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1월에는 풋살 경기 매칭 서비스 '플랩풋볼' 리그에도 출전했습니다. 단원들은 대회에 앞서 주·야간 훈련에 집중하며 풋살로 하나 되는 추억을 쌓았습니다.

런런 FS가 필요한 이유

런런 FS는 7월 창단 이후 6개월간 단순한 스포츠 경험을 넘어 단원들 간의 끈끈한 정서적 지지 체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그려갈 미래를 기대하는 단원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와 KB손해보험은 자립준비청년의 온전한 자립 이행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KB손해보험 풋살 동호회의 친선경기



꿈나무체육대회 특별경기 참가



대한민국 '쌘바 풋살'의 권위자인 김태우 풋살 감독의 특별훈련



멘토드림태권도 배재현 관장의 태권도 특강 장면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프로 선수들의 경기 직관



플랩풋볼 대회 출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 크라우드 펀딩 이야기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의 첫걸음, ‘Owned’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의 프로젝트 ‘Owned : 우리의 자립을 함께 응원해주세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는 의미가 되새기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품 선정부터 로고 디자인, 패키징,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를 세상에 선보인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글 아동복지팀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엽서

We are ‘With YOU’

홀트아동복지회가 세방이의순재단의 후원으로 진행하는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각자가 생각하는 ‘자립’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펀딩 프로젝트, 에세이 발간, 영상 제작,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담아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자립이란 바로 ‘우리의 일상’

오T 팀의 ‘Owned’ 프로젝트는 자립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오롯이 자립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립과 일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자립의 의미를 새기고자 판매물품을 컵과 그릇 세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과 함께 아동양육시설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든 엽서도 선보였습니다. 이 엽서들은 ‘살고 싶은 집’, ‘사랑’ 등을 주제로 한 공모전에서 선정된 그림들로, 아이들이 바라보는 따뜻한 세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만든 실용적인 생활용품과 함께,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엽서는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응원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던 첫 도전이었지만, 팀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마무리 단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를 진행한 오T 팀의 팀원

함께하는 자립을 위한 한 걸음

많은 분들의 응원과 함께 ‘Owned’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최종 43명의 펀딩 참여로 160만 5,000원의 수

익금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모인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 40여 명에게 맞춤형 식료품을 지원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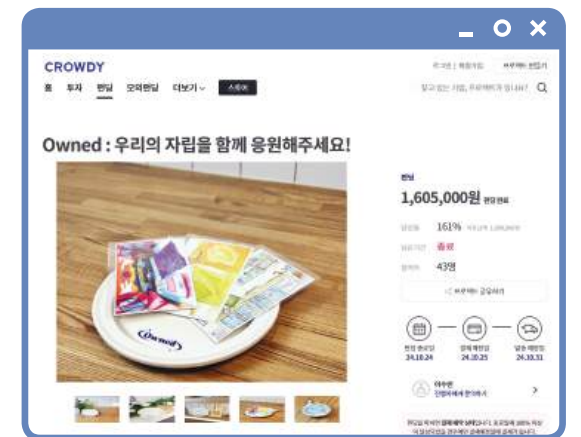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맞춤형 식료품을 지원받은 김OO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에 배송받은 임연수구이 하나를 할머니에게 구워드렸습니다. 매번 끼니를 해결할 때마다 고민되고,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많았는데, 도움을 받게 되어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받은 자립준비청년 후기

자신을 믿고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Owned’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들은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술과 경험을 쌓았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삶과 추억이 담긴
에세이집 《나의 단어》, 세 번째 이야기

남중이의 세 번째 단어, ‘마비’



《나의 단어》는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사업 ‘위드유 커뮤니티’ 활동 결과물로 제작된 에세이집입니다. 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세방이의순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위드유 커뮤니티를 통해 자기만의 소중한 추억과 경험, 꿈과 다짐이 담긴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중 감동을 주는 에세이를 하나씩 선정해 실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위로와 안식을 얻길 바랍니다.

글 자립준비청년 김남중



‘삐이이이...’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답답하고 이상했지만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다. 며칠 후 이명도 잦았다. 이제는 관자놀이를 뽕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이 이어졌다. 이윽고 왼쪽 귀 뒤부터 목까지 빠근함과 강한 뭉침이 전해졌다.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몇 시간이나 뒤척이다 잠시 잠잠해져 얇은 잠에 들었다. 이튿날 거울을 바라봤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괴상하기 짝이 없었다. 왼쪽 눈이 감기지 않았다. 마치 단단하게 굳어버린 찰흙처럼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뿌연게 앞을 가리는 눈을 비비고 양치를 시작했다. 입을 헹구려 양치물을 뱉는 순간 물이 입 한쪽으로 졸졸 새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알아챘다. 내 얼굴에 마비가 왔다는 것을.

급히 휴대전화로 ‘얼굴이 움직이지 않음’이라고 검색하니 ‘구안와사’와 ‘안면마비’라는 단어가 줄지어 나타났다. 신경과를 방문해 보라는 글을 보고 곧장 신경과로 달려갔다. 진료 내용에 안면마비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제대로 왔다 싶어 잠시 안도했지만, 의사의 냉담한 반응에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선생님, 눈이 감기질 않는데 잘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서럽고 막막했다. 곧장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약을 처방해 줬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다. 결국 과거에 자주 다녔던, 아주 친절할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선생님은 안면마비(벨마비)의 7레벨 중 5.5~6레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적어주시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나의 질문에도 일일이 답변해 주셨다. 참 감사했다.

나는 곧장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권했던 한방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또 잘 때는 테이프를 눈을 고정시키고 인공눈물을 자주 넣으며 눈을 관리했다. 그렇게 4개월쯤 흘렀을까? 드디어 왼쪽 눈이 감기기 시작했다. 안면 근육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다만, 골든타임을 놓친 탓인지 안면 연합운동과 비대칭이라는 후유증이 남았다. 날씨가 추워지면 근육이 더 굳어지는 것 같았고 원하지 않아도 자주 눈물이 흘렀다. 그중에서도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변해버린 외모였다.

“여러분 삶의 마비는 무엇인가요?”



누군가 내 얼굴을 쳐다보면 괜히 눈길을 피했고 대화를 나눌 때면 다른 곳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평소 좋아했던 사진 촬영도 점점 피하게 되었다.

그렇게 3~4년쯤 흘렀을까? 1~2년 차에 보였던 증상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물론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하기보다 이만큼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내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고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며 조금씩 긍정적인 희망을 그려갔다. 덕분에 후유증 치료를 받으며 나의 외모와 마음가짐을 돌보고 있다.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여러분 삶의 마비는 무엇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마비란 심신이 아프거나 혼란스럽고 괴로워 본래의 기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마비는 어느 순간에나 다양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타인에게는 마비의 크기가 쉽게 가늠되고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크게만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는 내 마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서럽고 서운하기도 하고 가끔은 분하기도 하다.

사실 마비를 해소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고 당당히 홀로서기를 했다고 자부하는 나 역시 그랬고 지금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며 수용하는 태도가 점점 단단해지면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마비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마비가 좀 더 유연하고 빠르게, 또 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위기에 놓인 미혼모자,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2024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돌아보기



2024년 1월부터 실시한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이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미혼모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엄마와 아기가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박혜정

엄마와 아기, 위기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기관 등에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개별 사례관리 및 상담을 통해 원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본부를 비롯해 4개 지부(부산·대구·충청·인천)와 함께 44가정에 생계비·양육비·의료비·주거비·심리상담비로 총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에 놓인 엄마가 아기를 안전하게 출산하고 안정적으로 양육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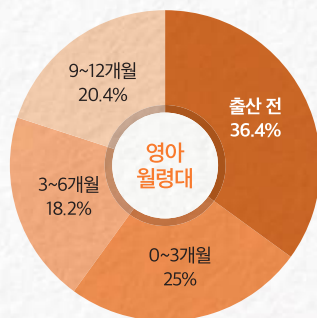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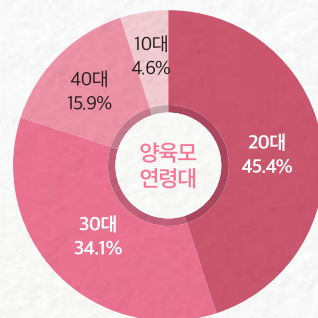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상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지원 당시 임신 중인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출산 후 100일 전후의 영아를 둔 가정도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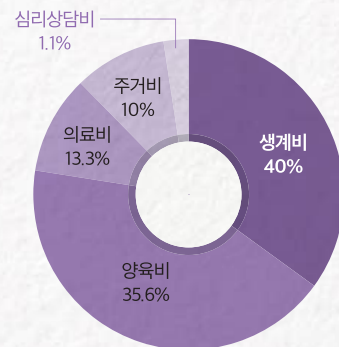
자녀 양육과 일상으로의 복귀

홀트아동복지회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녀 양육은 물론, 엄마와 아기 모두 안정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

연령별 참여 현황



항목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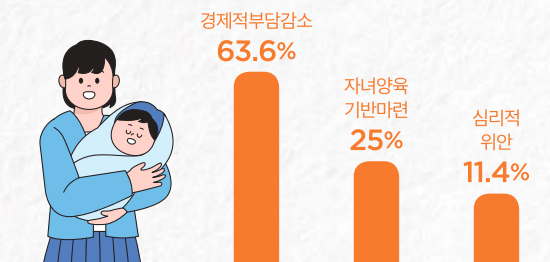
위기미혼모자에게 제공된 출산 준비 용품

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의 항목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자의 40%(36명)에게 생계비를, 35.6%(32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가족의 회복을 위해

사업 참여자의 100%가 긴급한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자들은 긴급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가 아닌 내 편이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2024년 7월 정부의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해 8월 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아기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와 아기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해 위기 미혼모자 긴급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 후기

“돈이 없어 아이의 물건을 매번 중고 거래를 통해 얻어왔는데, 긴급지원으로 젖병과 젖꼭지 등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힘든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고도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이를 키우는 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임신 후 태동이 느껴질수록 아이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아이를 지우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홀트아동복지회에 감사한 마음도 더욱 커졌습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홀트아동복지회가 유일한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미안함도, 당장 어디서 살아야 할지 걱정하던 문제들도 사라져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립 현장으로 나간 엄마들의 홀로서기 그리고 함께 서기

‘2024 HI-Change’ 한부모 강사 활동 및 수익 창출 지원



현대홈쇼핑 후원으로 진행된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024 HI-Change’를 통해 베이킹·수공예·가족공예 기술을 배우고 자립의 현장으로 나간 한부모들. 배우는 교육생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된 한부모들의 이야기와 나눔의 선순환을 위해 굿즈 제작에 손길을 모은 엄마들을 소개합니다.

글 한부모지원센터 유호정

교육생에서 강사로! 엄마의 성장 이야기

HI-Change를 통해 베이킹·가족공예 정규 클래스를 이수하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엄마들이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경험을 쌓으며 강사로의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두 엄마들은 모두 다른 본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완전한 자립을 위해 기술을 배우고 강사로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를 이수하고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은 ‘일반강사’로 임명되어 지난 1년간 원데이 클래스 강사와 8회기의 정규 클래스 보조강사로 활동하여 2025년에는 ‘전문강사’로 승급했습니다.

가족공예 클래스 이수자는 클래스 이후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클래스’에 지원하여 가족공예 1급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견습 강사’로 첫 강의 활동을 시작하여 세 번의 원데이 클래스 경험을 쌓고 지난 12월에는 ‘일반강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한부모 강사들은 복지관·기업 등 외부 기관에서도 원데이 클래스 제의가 들어와 강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 혼자서 아닌 함께 서기

한부모 교육생들은 받은 마음에 보답하고자 홀트아동복지회 굿즈 제작에 참여해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 비누와 병풀 비누로 구성된 천연비누 2구 세트는 제작부터 포장까지 엄마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지 않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나눔 실천과 실전 제작 경험까지 쌓고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굿즈 제작에 참여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공예를 배운 한부모들은 ‘홀트(HOLT)’가 각인된 하나뿐인 명함지갑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이수 시기는 다르지만, 제작에 참여한 모두가 서로 하나 되어 노하우를 공유하며 한 땀 한 땀 꼼꼼한 바느질로 지갑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가족 제품은 대량으로 제작해 볼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부모들은 앞으로 한 팀으로 협동해 기업 출강, 상품 제작 및 판매 등을 함께하며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이어오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홀로 그리고 함께 서는 그날까지 홀트아동복지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응원해 주세요!



가족공예 강사 활동



가족공예 강사 활동



베이킹 강사 활동



베이킹 강사 활동



천연비누 굿즈 제작팀



천연비누 굿즈 완성품



가족공예 굿즈 제작팀



가족공예 굿즈 완성품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선물해준 '아침뜰 플라워 클래스'

신혜은 후원자의 꽃꽂이 재능기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지난 10월 29일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침뜰에 '미리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플라워숍 '꽃길' 대표이자 아침뜰 후원자인 신혜은 강사님의 재능기부로 플라워 클래스가 진행된 것인데요. '꽃길'은 아침뜰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대전사랑메세나(대표 김진혁)의 협력업체입니다. 모든 걱정은 잊고 오직 나와 나무에만 집중했던 힐링의 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글 아침뜰 김미연



꽃으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

이번 플라워 클래스에는 아침뜰에서 생활하고 있는 9명의 엄마들이 참여해 편백과 더글라스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진행된 플라워 클래스는 참여한 모든 이에게 다가올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전해 주었습니다. 클래스를 이끈 신혜은 강사님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 플로리스트입니다. 매년 한 해 동안 느꼈던 감사함을 꽃꽂이 재능기부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자 3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침뜰 한부모 가족들에게 향긋하고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만의 미니 트리 완성하기

편백과 더글라스를 활용한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에서 풍겨나는 향기 덕분에 아침뜰 엄마들은 작업하는 내내 자연 속에 있는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가지 하나하나 컨디셔닝 작업을 거쳐 길이를 조정하고 바구니 속 플로랄폼(꽃꽂이용 스펀지)에 꽂으며 트리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한 시



편백과 더글라스를 활용한 트리 만들기

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엄마들은 일상 속 걱정과 고민에서 잠시 벗어나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손끝으로 느낀 자연의 질감과 완성된 결과물은 클래스에 참여한 엄마들에게 성취감과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플라워 클래스를 하다 보니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났다. 나도 아이에게 따뜻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행복

이번 플라워 클래스는 단순히 꽃꽂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홀로 아동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엄마들에게 힐링과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의 향기와 더불어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따뜻한 함을 나눴습니다. 또한 미니 트리를 완성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아침뜰은 '희망을 꿈꾸는 아침뜰'이라는 모토 아래 한부모 가족이 더욱 희망차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주신 플로리스트 신혜은 강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홀트일산요양원의 2024 착한송년회 'Show me the heart(네 마음을 보여줘)'가 지난 12월 7일, 자원봉사자 40명과 홀트일산요양원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송년회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해 더욱 뜻깊었는데요.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송년회 현장을 만나볼까요?

글 홀트일산요양원 서비스지원팀 강주윤 · 본부 홍보팀 정진숙

홀트일산요양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착한송년회

'Show me the heart'



나날수록 커지는 기쁨

착한송년회는 4개의 봉사단이 함께합니다. 이 행사를 처음 시작한 대한항공 사내 봉사단인 '다솨나눔', 매월 정기적으로 이용인들을 만나러 와 주시는 '옹달샘', 매년 바비큐와 부침개를 직접 만들어 주시는 '너나우리', 이용인들의 나들이를 도와주시는 '하리'에서 힘을 모아 주셔서 풍성한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직접 300줄의 김밥을 만들어 홀트일산요양원 가족들에게 전달했고, 100여 명의 장애인들을 위해 성탄 선물 꾸러미 꾸미백도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모은 후원금으로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봉사자들은 팀을 나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각 방을 찾아가 김밥을 비롯해 케이크와 치킨 등 각종 간식과 성탄 선물을 건넸습니다.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캐럴을 부르며 인사를 나눌 때는 봉사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 다. 봉사자들은 "정말 행복해하셔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 같이 즐겨요! 신나는 무대 공연

점심 후에는 신나는 무대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한항공 다솨나눔 유병기 봉사자님의 진행과 김신 기장님의 멋진 노래를 시작으로 고양버스커즈 공연팀 '매직유랑단'의 마술 공연, '베이비스'의 댄스 공연, '통기타젼스'의 노래 공연 등 멋진 공연이 펼쳐져 흥겹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홀트일산요양원 가족들은 무대 앞으로 나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도 추면서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행사에 함께한 린다백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님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봉사자분들과 연주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덕분에 우리 이용인들이 아주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성탄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항공 다솨나눔의 김재춘 사무장님은 "착한송년회에 참여할 때마다 늘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홀트 가족들을 만나러 오겠다. FOREVER!"라며 행사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홀트일산요양원 가족들에게 착한송년회를 열어 주기로 한 처음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 선물과 파티로 함께해 주신 4개의 봉사단 회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도 착한송년회를 통해 자원봉사자들과 홀트일산요양원 가족들은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길 바랍니다!



- 1 김밥 만들기에 열심인 봉사자들
- 2 성탄 선물 꾸러미 꾸미백 포장하는 봉사자들
- 3-4 선물 전달과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
- 5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한 봉사자들
- 6 매직유랑단의 마술 공연
- 7 홀트교회에서 열린 신나는 공연





4곳 자원봉사단장님에게 들어보는 '착한송년회' 참여 후기

'대한항공 다솜니눔' 김재준 사무장



우리 봉사회는 1998년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자발적 봉사 동호회에서 출발했어요. 착한송년회에는 25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으로 출발했지만 봉사하면 할수록 '봉사는 나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20년 넘게 봉사하면서 돌아보니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는 흔치 않고, 그것은 내가 더 행복해지는 기회더라고요.



'하리' 박동준 운영장



하리는 2021년 독서 동아리에서 시작해, '독서하리', '봉사하리', '운동하리'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면서 2022년 4월에 신설된 봉사단체입니다. 오늘 행사에 20명의 회원이 참여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신입 회원들이 홀트일산요양원을 알게 되고 정기 봉사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나우리' 김정숙 단장



처음에는 가족이 모여 2005년부터 홀트일산요양원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나우리 봉사단이라는 큰 조직의 봉사단체가 되었어요. 이번 송년회에서는 전 단원이 '김밥 싸기' 조에 배정되어 열심히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선행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들 하지만, 봉사는 예외인 것 같아요. 널리 알리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옹달샘' 김성연 단장



옹달샘 봉사단은 1998년 PC통신(유니텔) 동호회로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홀트일산요양원을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착한 송년회에는 2000년부터 합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곳에 올 때마다 장애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 반가웠습니다. 이것만큼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 ②

홀트아동복지회가 고양특례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서 지체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 및 새로운 레저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지체장애인 스킨스쿠버 교실'을 진행했습니다. 특수장비와 안전 문제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스킨스쿠버'에 도전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지만, 센터 담당교사들의 헌신과 참여자들의 불굴의 의지에 힘입어 6개월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장애인 생활체육의 한계를 넘어선 '스킨스쿠버 교실'의 성과를 돌아봅니다.

글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재활체육팀 황용묵 · 본부 홍보팀 정진숙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지체장애인 스킨스쿠버 교실' 성공적 마무리와 참여자 후기

불가능을 가능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한계를 넘어서다

장애인들의 도전과 탐험, 자신감 향상을 위한 '스킨스쿠버 교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이하 센터) 재활체육팀은 지체장애인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설렘과 뿌듯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도전과 탐험, 자신감 향상을 위한 지체장애인 체험교실 '스킨스쿠버 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스킨스쿠버 종목 특성상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고가의 특수장비와 잠수품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고 센터 예산을 활용해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교사가 참여자들에게 스킨스쿠버 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수업을 마친 참여자들이 다 함께 손을 맞잡고 환호하는 모습





수업 참여자들의 잠수풀 단체 기념촬영 모습

다양한 장비 마련과 잠수풀 이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 진행

먼저, 센터 내 수영장에서는 이론 교육 및 수상·수중 안전 교육, 장비 명칭 및 사용법 교육, 부력·조류·수압 등의 잠수 물리학 교육, 기본 잠수훈련 등을 진행하고 이후 4.5m 깊이의 잠수풀이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양주 에코스포츠허브'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 실습, 응급상황 안전 교육·실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사·도의 지원을 활용해 다양한 고가의 장비를 마련하고, 주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한 번에 6명의 인원이 잠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본 기술을 쉽고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스킨스쿠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응급상황 안전 교육 장면

이용인들의 호응과 요청으로 스킨스쿠버 일일 체험교실 운영

지난 11월 16일에는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참여를 원하는 이용인들의 문의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스킨스쿠버 일일 체험교실 '2024 지체장애인 스킨스쿠버 및 응급처치(CPR)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스킨스쿠버 체험자를 제외한 센터 이용 지체장애인 10명이 참여했으며 스킨스쿠버에 대한 정보 이해(장비 명칭, 사용법, 주의사항) 후 체험과 안전 교육(응급상황 대처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센터 이용 지체장애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5년에도 스킨스쿠버 체험교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장비 확보와 장소 협조 등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4.5m 깊이 잠수풀에서 진행된 기본 잠수훈련 모습



지역사회활성포츠센터



지체장애인 스킨스쿠버 교실 참여자 인터뷰

Q. 스킨스쿠버 교실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귀중(73세, 여)

저는 소아마비를 앓고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도 아이 넷을 모두 자연 분만했고 10년 전부

터 휠체어합창단에 참여해 공연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센터가 개관했을 때부터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참여 제의가 왔을 때 선뜻 하겠다고 했죠. 담당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남곤(59세, 남)

20년 전에 등산하다가 넘어져서 목을 다쳤는데 목뼈 고정 수술을 하

터 환체어합창단에 참여해 공연도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센터가 개관했을 때부터 수영과 헬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참여 제의가 왔을 때 선뜻 하겠다고 했죠. 담당 선생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지연(25세, 여)

10대 후반에 뼈나 근육 등에 생기는 골육종이라는 암이 오른쪽 하지에

생겼고 수술 후 인공관절로 대체하면서 장애인 이 됐어요. 암은 7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동안 센터에서 진행되는 재활수영, 헬스 같은 재활운동에 꾸준히 참여했어요. 그러던 중에 담당 선생님의 소개로 스킨스쿠버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Q. 잠수풀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이귀중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께 폐가 될까 봐 걱정이 앞섰죠. 첫날은 멋모르고 잘 들어갔는데, 둘째 날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일대일 교육으로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담당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다 보니 임무를 완수했어요.

인지연

장애가 생기고 나서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는 물속에서 제 마음대로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남곤

경추 환자가 된 후 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대로 호흡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물속 기압 변화로 귀에 가해질 압력도 두려웠어요. 다행히 여러 번 도전하면서 관찰아졌지요.

Q. 수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었나요?

전남곤

물속에서 호흡에 따라 몸이 뜨거나 가라앉는 중성부력을 배웠는데 물속이지만 꼭 하늘을 나는 느낌이었어요. 특별한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귀중

다 같이 손잡고 잠수풀 바닥까지 내려가서 빙빙 도는 활동을 했어요.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해냈다는 성취감도 들어서 좋았어요.

인지연

수업에 흥미를 느끼도록 담당 선생님들이 게임을 자주 진행하셨어요. 수영장에 던진 링 찾아오기, 물속에서 글자 맞추기 등을 즐겼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Q. 스킨스쿠버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귀중

스킨스쿠버는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직접 해보니 나이 상관없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인지연

'난 못할 거야'라고 단정 짓고 스킨스쿠버를 도전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저도 겁내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전남곤

가족들이 스킨스쿠버를 즐기면 저는 쳐다만 봤거든요. 제 꿈이 가족들과 함께 고래상어를 보는 건데 이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사이사이'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회적 고립 가구와 주민 관계망 확대를 위한 마을 돌봄 지원사업



이웃 사이 지킴이로 임명된 자원봉사자들



일상생활 지원



이웃 사이 지킴이 정기 모임



'사이사이' 가을 나들이를 통한 정서 지원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고립'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심'과 '관계'라는 생각으로 '사이사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웃 '사이'를 돌아보고 관계를 정상화하여 사회관계망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열심히 달려온 '사이사이'의 성과를 소개합니다.

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정창현

'이웃 사이 지킴이' 양성 교육과 정기모임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는 사업 실시를 위해 먼저 사회적 고립 가구를 돌보줄 지역주민 10명을 모집했습니다. 평소 하남시와 주변 이웃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주민들이 기꺼이 '이웃 사이 지킴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웃 사이 지킴이들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대상자 기초상담 교육,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이웃 돌봄, 자살 예방 교육, 마을 활동가(리더) 교육, 응급상황 대처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지킴이들은 전문 자원봉사자로서 이웃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서로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고립된 이웃 발굴과 서비스 계획을 함께 수립해 고립 가구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 주도 활동도 펼쳤습니다.

고립의 위험 알리기

이웃 사이 지킴이들은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역사회에 직접 찾아가 '사이사이' 사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에 대해 널리 알리고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캠페인을 통해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주변 이웃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립 대상자의 이웃되기!

이웃 사이 지킴이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고립 가구 총 20명의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혼자 외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주민에게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외출을 돕고, 가정 내 정리 정돈을 함께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또한 원예, 요가, 나들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다른 이웃을 만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정서 지원과 교류 활동을 경험한 대상자는 "복지관을 통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사이사이 이웃을 위한 민·관 협업과 공유

'사이사이' 사업은 하남시 구도심 5곳의 행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낙후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담당 주무관들도 사업에 적극 동참해 복지관과 함께 네트워크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은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해 효과적으로 사업 진행을 이끌 뿐만 아니라 대상자가 복지관을 직접 찾아와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조금씩 사회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에 이웃 사이 지킴이와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지원체계가 더욱 공고해질지 기대합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고립 가구에 관심을 가지고 2년차에 접어든 '사이사이'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이웃 사이 지킴이 봉사자, 지역주민, 고립 가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할 '사이사이' 사업의 행보에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진행

아빠와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 '부자(父子)의 탄생'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가족관계 증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사업



부산에 위치한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의 '부자의 탄생' 사업은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아버지 6명이 참여하여 양육 코칭, 체험활동, 가족 상담, 아빠 모임 등을 통해 올바른 양육 인식을 함양하고 자녀와 추억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던 '부자의 탄생'을 돌아봅니다.

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복지팀 이창희



지난 가을 진행된 거제도 1박 2일 캠프 단체사진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활동 돈가스 만들기 모습

좋은 아빠란 무엇일까?

현대사회는 아버지 역할의 재발견 시대라고 불릴 만큼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거나, 현실적 여건 때문에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이들이 서로 좋은 지지자가 되어 양육 정보를 주고받으며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자의 탄생'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총 10회로 이루어진 사업에서 참여자들은 먼저, 아동인권 및 초기 사춘기 교육, 가족 상담 등을 통해 자녀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학대 상황의 예방법을 알아보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은 감정카드를 활용해 평소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거나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아이를 키우는 데 정답은 없지만 교육을 들으니 더 바람직한 양육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매일 화만 내는 것 같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저를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참여자들의 후기를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활동으로 아이와 함께 추억 쌓기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진다'는 말처럼 우리는 저마다 어린 시절 아빠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

한 조각쯤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탄생'에서도 아빠와 자녀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1년 동안 요리활동, 1박 2일 캠프, 연극 관람, 워터파크 나들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아빠로서 첫걸음, 자조모임으로의 발전

지난 11월에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2024년 한 해의 사업을 돌아보는 평가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활동에 참여했던 아빠들은 서로 활동 소감을 나누며 "아이들이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복지관에 감사하다"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빠들도 양육에 참여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올바른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싶다는 소감도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좋은 아빠로서 첫걸음을 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자조모임으로 발전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의 가족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앞장서는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지난해 쌓은 추억을 바탕으로 아버지 자조모임과 활발한 양육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 문제 해결에 더욱 힘을 예정입니다. '부자의 탄생'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몽골 아동과 가족의 더욱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도약

몽골 홀트드림센터-친길테구 아동·가족 발달 및 보호부와 MOU 협약 진행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몽골 홀트드림센터를 운영하여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진행된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길테구 아동·가족 발달 및 보호부'와의 MOU 체결 소식과 빈곤 가정 및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소개합니다.

글 국제개발협력팀 이소민

몽골 홀트드림센터의 시작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빈곤지역 아동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4년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르흐구 1센터 개소 이래 연간 약 8,00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보호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울란바토르시 친길테구 2센터에서 종합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혼자 있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에서 부족했던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와 더불어 아동 점심 급식사업, 정기 건강검진, 문화 체험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사업을 통해 몽골 아동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아이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홀트아동복지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행정센터와의 협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11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길테구 아동·가족 발달 및 보호부'와 MOU를 체결하고 빈곤지역 가정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욱 튼튼한 울타리가 되기 위한 목표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1



2



3



4

빈자리를 채워주는 몽골 홀트드림센터

몽골 홀트드림센터에는 매일 약 60명의 아동이 방문하여 '방과 후 교실' 수업과 점심 급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몽골 홀트드림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게르촌의 아동들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맞벌이 부모님을 기다리며 집에서 홀로 TV를 보거나 무료하게 지내곤 합니다. 게르촌은 나무 골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동들은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지키기 위해 개소된 몽골 홀트드림센터에서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선생님의 보호 아래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이처럼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몽골 게르촌 아동들이 겪고 있는 보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흐라 가정을 지켜주는 홀트의 울타리

몽골 홀트드림센터를 다니는 바흐라와 바흐라의 어머니는 몽골 홀트드림센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흐라의 어머니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을 비워야 합니다. 가난에 시달려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지만 이제 바흐라는 동생과 함께 홀트드림센터를 다니며 점심과 저녁 급식을 제공받아 기초 영양 섭취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대문이었던 나무 울타리를 바흐라 가정에 선물해 홀트드림센터를 지키고 있던 든든한 울타리가 바흐라의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 1 센터 전경
- 2 MOU 체결 사진
- 3 몽골 아동들과 함께
- 4 게르촌을 둘러싼 나무 울타리
- 5 환한 표정의 몽골 아동들



5

앞으로의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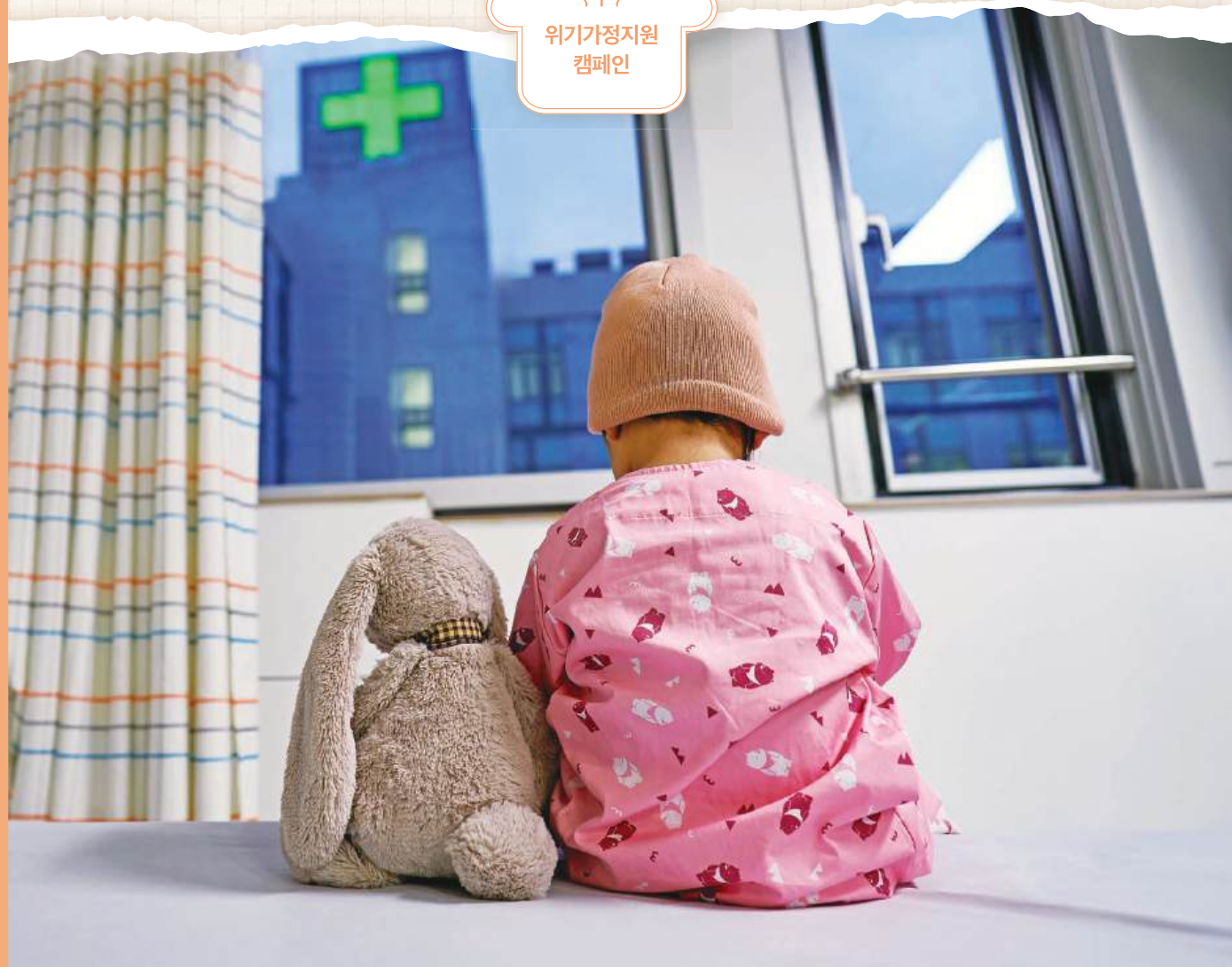
자율주행기술과 Chat GPT가 도입되어 많은 이들이 편리한 삶을 누리는 시대이지만 지구 반대편 몽골에는 여전히 전기와 수도,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몽골 빈곤지역 아동들에게 지난 10년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와 몽골 홀트드림센터는 앞으로도 몽골 빈곤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과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버린 아이, 새봄이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위기가정지원 캠페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날 밤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 새봄이(가명, 6세)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열성 경련. 한밤중 119 구급차 소리가 온 동네를 가득 채웠고 새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약물로도 치료되지 않았고 결국 새봄이는 그날 밤 이후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검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새봄이는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중환자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상선, 췌장, 위장, 간 등의 모든 장기가 손상되었고 피부마저 약해져 온몸에 발진이 생겼고 잦은 검사와 치료로 몸 여기저기는 멍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기억만 남았습니다

사경을 헤맸던 어린 새봄이는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와 해마 손상으로 5세 이전의 기억은 잃어버렸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잊은 채 차가운 병실에서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힘든 치료를 견뎌온 아픈 기억만 가득합니다.

새봄이를 간호해 줄 엄마에게도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고, 뇌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모야모야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일을 하고 있지만 아픈 엄마와 자녀들까지 여섯 식구 생계도 벅찬 형편이라 새봄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 없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함께 지켜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0~18세)은 43만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글 나눔기획팀 김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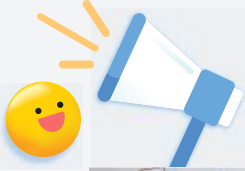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새봄이 후원하기



※ 본 캠페인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명 및 대역 촬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새로운 도전 그 감동의 여정



지난 11월 23일,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해단식이 개최되었습니다. 홀씨 1기는 7월 모집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홀트아동복지회의 다양한 사업을 널리 알렸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해단식 현장과 새로운 도전으로 폭넓은 세대와 소통한 SNS 서포터즈 홀씨 1기의 열정 가득했던 5개월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글 홍보팀 김은영

마지막을 빛낸 해단식과 시상식

18명의 서포터즈는 4개 팀(민들레·씨드림·홀홀·홀티아)으로 나누어 자립 준비청년, 위기임산부와 영아, 위기가정아동 등 매월 주어진 캠페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카드뉴스 및 영상 제작, 기사 작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의 여러 플랫폼에서 이벤트를 실시하여 일반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특히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젊은 세대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홀트아동복지회의 캠페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해단식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며 수료증을 수여하고,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팀 및 개인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시상했습니다.



활동 속에서 빛난 성장과 협력

홀씨 1기의 활동은 단순히 콘텐츠 제작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캠페인에 깊이 공감하고 참여한 데서 나온 결과물로,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2030세대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SNS 서포터즈 홀씨 1기 활동 성과	
함께했던 5개월간 홀씨 1기가 일궈낸 눈부신 성과들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총 109개
이벤트 참여자	671명
총 조회수	40,415회
피드백	5,663건
콘텐츠 좋아요 수	4,921개

각 팀들의 활동 참여 소감



1조 민들레 팀

“팀원들 간의 협력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뤄낸 결실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조 씨드림 팀

“대면 행사를 통해 팀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았고 덕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좋은 팀원이자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조 홀홀 팀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제작했던 점과 비영리마케팅과 콘텐츠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이 앞으로의 대외활동과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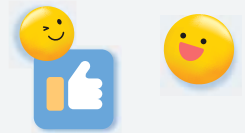


4조 홀티아 팀

“자세한 피드백 덕분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마케팅 역량 강화와 추후 활동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외활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서포터즈가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



홀씨 1기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출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함께해 준 홀씨 1기 서포터즈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며, 다가올 홀씨 2기도 더 많은 청년들이 특별한 경험과 성장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나눔과 봉사 로 하루하루 의미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이원우·최강선 부부의 나눔 이야기

이원우 후원자님은 48년간 홀트아동복지회의 아동과 가정, 장애인을 위해 후원과 봉사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원우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동안 걸어오신 삶의 길을 함께 들여보며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글 나눔지원팀 김호인



이원우, 최강선 후원자 부부



장애인 체험활동 지원 모습



홀트일산복지타운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시설 환경정리 봉사활동

후원자로서의 48년, 자신도 함께 성장해온 세월

지난 1977년부터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어온 이원우 후원자님은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래 부사장 자리에 오르기 까지 40여 년 동안 정기후원 금액을 늘려가며 꾸준히 후원을 이어오셨습니다. 부부의 결혼기념일, 아들의 군 입대와 제대, 첫 직장 입사 등 각종 기념일 후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1억 6,000만원의 기부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하셨습니다. 더불어 퇴임 이후에는 아내 최강선 님과 함께 홀트아동복지회 산하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정기적으로 장애인 돌봄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원우 후원자님은 “사랑받아야 할 아동과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장애인을 위한 선행은 저희 가족에게 삶의 보람이자 가슴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며 “홀트아동복지회를 후원하면서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남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삶의 기쁨

이원우 후원자님은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매주 1회 아내 최강선 님, 그리고 가까운 후배 송영구 님과 함께 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시설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잡초 뽑기, 시설 환경정리, 그리고 홀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의 야외활동 지원에도 함께하며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새로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을 이어가고자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 직장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가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우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는 것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기꺼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가족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해리 홀트님의 정신이 이 땅에 깊이 뿌리내려 아동과 가정이 행복해지는 소중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 이원우 올림

이원우 후원자님은 퇴직 후 봉사활동 외에도 새롭게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연주, 아내 최강선 님과의 잔잔한 대화 등 소소하지만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미 있는 인생 여정을 묵묵히 걸어오신 이원우 후원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뜻에 함께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의 더 큰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HD현대 1%나눔재단 'GRC 플리마켓'

지난 12월 4~5일 이틀간 HD현대1%나눔재단이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플리마켓을 진행했는데요.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 셀러들만 참여했던 2023년과 달리 2024년에는 자립준비청년 셀러들도 함께해 온기를 더했습니다. 뜻깊고 풍성한 GRC 플리마켓 현장과 후기를 소개합니다.

글 나눔기획팀 옥지희



GRC(HD현대 글로벌R&D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입주 2주년을 맞이해 열린 플리마켓은 HD현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사옥 1층을 오픈하여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23년부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단단한 부모-똑똑한 엄마'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플리마켓 판매용 제품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후원해 한부모와 자립준비청년 셀러들은 후원받은 제작비로 제품을 만들고 당일 판매 수익금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쓰였습니다. '단단한 부모-똑똑한 엄마'를 통해 기술교육을 습득한 한부모들은 플리마켓에 참여해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기술 습득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경험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배우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셀러 소감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공향에서 천연향으로 전환했는데 제품이 바뀐 것도 알아봐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더 좋은 퀄리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플리마켓을 통해 제가 만든 물건을 판매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판매해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셀러 소감



모루인형을 제작·판매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지만 제품을 좋아해 주신 임직원분들 덕분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판매를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지 알게 되어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홀트아동복지회와 HD현대1%나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플리마켓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HD현대1%나눔재단 송채은 매니저 인터뷰

Q. 행사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GRC 플리마켓은 사회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참가해 물품을 판매하는 행사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셀러로 참가한 한부모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판매 물품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매출액 전액은 셀러에게 전달되어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Q. 2023년과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A. 2024년에는 한부모 셀러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셀러들도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마켓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판매 물품도 다양해졌고, HD현대 임직원들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바자회도 함께 운영해 더 좋았습니다.

Q. 사내 임직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연말을 맞이해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진 아산홀이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많다 보니 연말 선물로 의미 있는 물건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Q. 끝으로, 플리마켓을 준비한 담당자로서 소감이 궁금합니다.

A.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사를 직접 마련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행사장을 채워주신 셀러들과 방문객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플리마켓을 즐겨주신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25년에도 홀트아동복지회의 한부모, 자립준비청년 셀러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큰 사랑, 더큰 가족 홀트 전국후원회의 헌신에 감사하며

제42회 전국후원회 수련회가 달구벌후원회 주최로 지난 10월 16~17일 1박 2일간 경주 강동리조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봉사활동과 후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한 전국후원회 회원들 150명이 참여하여 회원들의 공로와 헌신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글 나눔자원팀 이예진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모금 바자회



최명신 전국후원회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지키는 일에 동참하다
전국후원회 수련회 오프닝 행사는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응원하는 바자회로 출발했습니다. 와프랩, 라운드랩, 헤이두두 등의 기업후원 물품 판매 수익금과 대구후원회 50주년 기념 기금 및 개인 후원금 등 총 2,000만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엄마와 아기를 지키는 사업비로 전할 예정입니다.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전국후원회
자립준비청년 파랑새 명예 멘토인 강도현 MC의 진행으로 수련회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후원회는 각 지역후원회, 개인 기금뿐만 아니라 전국후원회를 통한 모금으로 홀트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공로패를 받은 대구후원회



최다 기부 감사패를 받은 부산후원회 정관희 회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자립준비청년이 주체가 된 해외 봉사활동 '드림하이'를 지원하며 2,320만원의 후원금을 마련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후원회를 빛낸다
올 한 해 홀트 후원회를 빛낸 회원들의 공로를 기리고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974년 창립하여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대구후원회와 2025년부터 서울후원회 강원지회로 활동하게 된 다문화 강원후원회에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김희정 대구후원회장은 "대구후원회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지지를 받아온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대구후원회가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전 광주후원회 서혜숙 회장(본죽&비빔밥cafe 광주학동점 대표)과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로 활동하며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교육비 후원을 실천한 부산후원회 정관희 회원(EN장학회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후원회 회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위기임산부와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큰 가족 홀트 후원회

“ 딸과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었고, 제 아이도 10년, 20년 후에 홀트아동복지회의 후원자이자 후원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 배수진 달구벌후원회 서기

“ 홀트아동복지회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홀트 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 기쁘고, 나눔의 모범이 되는 선배님들의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

- 김문익 달구벌후원회 회장



달구벌후원회

‘Lemon12’ 김의근 대표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 스토리

“아들 래현이가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행사 ‘Lemon12’와 사랑하는 아들 래현이의 존재
‘Lemon12’는 2022년 김의근 후원자님이 창업한 여행사입니다. 김의근 후원자님에게 Lemon12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천국으로 간 첫째 아들 래현이의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로서 상실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남은 삶을 아들을 대신해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소중한 순간에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업 선택이 쉽지 않았지만 이 길이 래현이와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래현이가 제 곁에 있다는 믿음으로요.”

“래현이가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일을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속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탐리더스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을 실천하다

김의근 후원자님은 래현이 일을 겪으며 함께 걱정해주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준 주변 분들에게 큰 감사를 느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위로나 축하, 감사의 인사 대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성의를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성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감사한 삶을 선물 받았기에 기부를 통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으로 어려운 가정과 그 아동을 돌보는 일은 홀트아동복지회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11월 28일 여행사 ‘Lemon12’ 김의근 대표님의 탐리더스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위해 1,500만원의 후원을 약속한 김의근 후원자님과 홀트아동복지회의 인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지난 20년간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으로 근무하며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 및 모국방문단을 돕는 일에 헌신했고, Lemon12를 창업한 후에는 홀트패밀리샵 후원자로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의근 후원자님을 만나 삶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게 된 이야기와 후원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신미숙 회장님과 답소 중인 김의근 후원자님



김의근 후원자님의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식

“고액후원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니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탐리더스로서 주변에 좋은 일을 함께하자고 권유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관광객을 위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라고 해요. 관광사업가가 꿈이라는 말에 이 또한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기했습니다. 저도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깐요.”

후원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삶의 기쁨입니다.

꾸준히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을 챙기며 후원의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김의근 후원자님은 캄보디아 결연아동 문 스레이카(Morn Sreyka)의 후원자로 7년간 아동의 성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결연아동 문 스레이카가 아들 래현이와 동갑내기이기도 해서 더욱 의미 있는 후원이라고 말하는 김의근 후원자님은 “나눔은 타인을 돕는 만족감에 더해 후원 아동의 성장을 바라보는 보람과 뿌듯함도 있어 행복감이 크다”고 표현합니다.

“업무차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를 방문하여 문 스레이카를 직접 만나기도 했어요. 최근 아동의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들과 캄보디아 키리롬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훌륭하게 해내리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홀트아동복지회에 힘을 더해주시는 탐리더스 위원 김의근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Love in Action'

권지혜 탐리더스 위원이 전하는
삶과 나눔 이야기



강연을 마치고 홀트아동복지회 직원들과 함께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권지혜 후원자)

헬로입주 대표이자 아이에스지주(주) 커뮤니케이션실 전무인 권지혜 후원자님은 홀트아동복지회 고액후원자 모임 탐리더스 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나아가 지난해 9월 9일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대상 강연자로도 활약하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들려주었습니다. 권지혜 후원자님이 전해준 삶과 나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글 나눔지원팀장 권혜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홀트를 만나다

강연자로 나선 권지혜 후원자님은 홀트아동복지회 본부 강당에서 홀트아동복지회와의 첫 인연에서부터 지난여름 자녀와 함께 떠난 캄보디아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느꼈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첫 아이 출산 후 충분히 안아주고 예뻐해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엄마와 잠깐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며 우는 것을 보고 불현듯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마음으로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을 결심했어요.”

“한국이라는 동양의 작은 나라 아이들을 향한 설립자 해리 홀트 부부의 사랑은 참으로 고귀했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해리 홀트 부부처럼 전 재산을 기부하고 평생을 헌신한 사람은 없거든요. 설립자의 ‘Love in Action’은 제가 지금까지 기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나눔은 좋은 일을 실천하는 것 이상의 행복한 경험

권지혜 후원자님은 2012년 비데 전문기업 삼흥테크를 운영하며 연말 특별 판매행사로 비데를 구매하는 고객과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의 지원사업에 동참하는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3,000만원의 후원금을 소외된 영유아

아동과 미혼모에게 전하기 위해 홀트아동복지회를 방문했고, 당시 후원 담당자였던 신미숙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후 권지혜 후원자님은 개인 후원과 아이에스동서 기업 후원을 통해 아동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고,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둘째 아들과 캄보디아 봉사 활동도 다녀왔습니다. 권지혜 후원자님은 강연을 통해 봉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지인들에 대한 고마움과 홀트드림센터 현장을 방문했던 소감을 전했습니다.

“탐리더스 후원금이 씨앗이 되어 캄보디아 국제협력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 홀트드림센터가 실시하는 아동교육과 부모교육을 통해 캄보디아 도시 빈민이 모여 사는 트라피앙 안찬 마을이 가정과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현장으로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더욱 기뻐요?”

“현지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내내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녀온 후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 소식이 궁금하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후원과 봉사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캄보디아 방문 소식을 접한 지인들의 따뜻함에 더욱 힘이 났습니다.”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 현지 아동에게 학용품 전달하는 모습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 아동들에게 방과 후 영어 교육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베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요”

권지혜 후원자님은 “캄보디아에서 만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밝고 착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데도 환하게 웃으며 먼저 다가가 주었기에 힘들다기보다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현지 아동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봉사활동을 끝내고 돌아와 사진을 정리하며 ‘현지 아동들과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웠나?’ 할 정도로 사진 속에서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정말 행복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눔을 실천해 보니 선한 영향력은 물론 그 과정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한 뼘 더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기쁨이 배가되었습니다. 나눔의 발걸음에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지혜 후원자님은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점심식사와 정성껏 준비한 선물까지 전달하며 현장에서 일하는 홀트 가족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후원과 봉사로 홀트아동복지회와 동행해 준 권지혜 후원자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절실한 아동과 가정에 희망을 전하는 홀트아동복지회가 되겠습니다.



본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몽골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교육 지원

10월 23일,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몽골 취약계층 청소년의 직업교육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의 '몽골 꿈나눔 센터 건립 및 지원사업 후원'의 확장형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몽골 울란바토르시 친길테구 빈곤 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부

김기범 탐리더스 위원, 한부모 가정에 1,000만원 후원

12월 3일, 공인노무사 김기범 탐리더스 위원의 한부모 가정 지원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김기범 위원이 전해준 소중한 후원금은 2024년 8월 한부모 가정 가족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가족사랑 캠프'를 통해 18가정의 관계 회복, 양육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한부모 가정 캠프와 여가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부

에듀윌 부동산 공법 오시훈 교수 탐리더스 위촉

12월 14일,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오시훈 교수의 후원금 전달식과 고액후원자 탐리더스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시훈 교수는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강과 합격서 및 키워드 암기장 서적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탐리더스로서 후원을 지속해서 실천소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본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2024 위시트리 캠페인 진행

12월 18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계열 16개 호텔 임직원들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 152명에게 특별한 산타가 되어 주는 '위시트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온 이 캠페인은 임직원들이 위시트리에 걸린 아동들의 소원 카드를 읽고 각 아동이 원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직접 구입해 전달하는 나눔 활동입니다. 임직원의 나눔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본부

故 정원중 위원, 탐리더스 명예 위원 위촉

12월 5일,故 정원중 후원자의 탐리더스 명예 위원 위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으로 담도암 투병 끝에 지난 9월 고인이 된故 정원중 위원의 유가족 정한중 후원자는 "평소 주변에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고인의 뜻을 기려 장애인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며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

후원사 KB손해보험, 제4회 착한 기부자상 국무총리 표창

12월 9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 실천에 앞장선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에서 KB손해보험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KB손해보험은 2014년 미혼한부모 영유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365베이비케어키트를 시작으로 학령기 자녀를 위한 365키즈키트, 자립준비청년 취·창업 지원 '런 런 챌린지'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부산지부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 캠페인 실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산역 일대에서 열린 부산차이나타운 축제에서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을 위한 캠페인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위기에 놓인 미혼 엄마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후원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위기임산부와 미혼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구지부

포항여성병원, 위기임산부와 영아 지원 후원금 전달

10월 31일, 포항여성병원 임직원들이 '280일, 아기를 지키는 시간'에 참여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여성병원은 2017년 홀트 포항후원회와 함께한 '사랑나눔 자선바자회'부터 지난 3월 출생 미신고 아동 방지 및 보호 체계 지원을 위한 '지킴이키트 프로젝트' 업무 협약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미혼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지부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후원금 전달

10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와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후원을 통해 어린 생명을 지키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위기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발굴하고 미혼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4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공모전 대상 수상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한 '2024년 경기도 장애인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대상 공모전'에서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프로그램 '잡클릭스(Job-Clicks)'는 공유형 전동기기 관리자 양성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과로 4명의 발달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고운들

생활실 주방 리모델링 공사 완료

10월 15일, 생활실 주방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일주일간 진행된 이번 주방 리모델링 공사로 수납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낡은 가구도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주방 리모델링을 지원해 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 엄마,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단장된 주방에서 더욱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름들

새로운 내일을 다짐하는 겨울 여행

12월 16~17일 1박 2일 간, 아름들 한부모 가족들은 인천으로 겨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양육과 자립 준비에 매진하느라 수고한 엄마들을 위해 마련한 이번 여행에서 한부모들은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인천의 명소를 탐방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워터파크와 찜질스파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습니다.



홀트학교

사회복무대상 우수 복무기관 병무청장 표창 수상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제정된 사회복무대상에서 홀트학교가 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성실 복무 유도 등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전국 특수학교 최초로 우수 복무기관에 선정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권경주 사회복무요원은 교육부장관 표창을, 김은주 주무관은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해 홀트학교가 3관왕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침들

(주)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 임직원 끝전 후원

12월 3일, (주)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소장 고영훈)에서 한 해 동안 임직원 급여의 끝전을 모은 귀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주)금호석유화학 중앙연구소는 오랜 시간 변함 없이 자원봉사와 다양한 후원으로 아침들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일에 함께해왔습니다. 임직원들이 전해준 따뜻한 마음은 아침들 한부모가족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클로버

쉽과 채움이 가득한 캠프닉

10월 11일, 대구클로버 한부모들은 오랜만에 자립 준비를 위한 학업과 육아의 짐을 내려놓고 쉽고 채움이 가득한 캠프닉(피크닉 같은 가벼운 캠프)을 다녀왔습니다. 나들이에서 엄마들은 온전히 자신만을 돌아보며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며,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여유와 낭만이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전클로버

대전대흥침례교회 봉사단 모꼬지와 함께하는 놀이활동

대전대흥침례교회 봉사단 모꼬지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전대흥침례교회 봉사단 모꼬지는 대전클로버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놀이활동으로 마을공동체 속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함께할수록 커집니다

- 국내후원** 위기가정아동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고, 한부모가정과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등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해외후원** 개발도상국 빈곤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 4개국 4개 해외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결연후원** 향기 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국내·외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기회를 지원합니다.
- 고액후원** 다양한 기부활동과 봉사료 이웃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고액후원자 모임 '탑리더스'가 되어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합니다.
- 기업후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협력사업(수익 기부, 지원사업 공동기획, 임직원·고객 참여 캠페인, 공익연계 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합니다.
- 교회후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홀트아동복지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회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갑니다.
- 특별한 후원** 생일, 첫돌, 결혼, 취업, 출산, 팬덤 등 특별하고 소중한 날에 나눔을 실천하는 기념일 캠페인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후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캠페인

실명위기의
자립준비청년
우석이



후원 신청 바로가기

홀트 패밀리#



홀트패밀리#이란?

뜻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중소기업인 나눔 실천 캠페인입니다.

자영업,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업, 학원, 병원, 카페 등 규모와 종류는 달라도 따뜻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신은 나눔 가족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후원문의 02)331-7000

사랑, 나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방이의순재단의 나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지원



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희망스위치ON>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환경개보수 지원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환경개선사업 <햇살자람터>
지자체 유휴공간을 새롭게 기획하여 영유아 문화활동을 위한 환경 지원



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복지기반 구축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량 지원

#맞춤형 지원



전동휠체어 배터리 지원 사업
저소득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지원



아동 안전 교육 사업 <이음 아카데미>
대학생 개포터즈를 통해 아동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안전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한 안전 교육 지원



세방그룹 임직원 기부 캠페인 <폴리마켓>
세방그룹 임직원들이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캠페인

#미래 세대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자소모임 지원



장학 사업
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및 청소년 장학 지원

